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의지 재확인 재무장관은 경기침체 우려 일축
  - 미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예상. 생산자물가는 상승할 가능성
  - ECB 주요 인사, 미국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 고조 일부는 4월 금리인하 관측
  - 일본은행 총재, 경제 전망 수정 시 이를 정책에 반영. 미국 관세정책은 하방 압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트럼프 상호관세, 중국 보복관세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심화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공격적인 상호관세와 관련 여파 확산 가능성 등으로 큰 폭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상호관세의 유럽 경제 피해 우려 등으로 8.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 침체 현실화 가능성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2%, 2.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5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6% 하락, 한국 CDS 상승

|    |      | 4/4일    | 3/28일   | 전주말대비  |                 |           | 4/4일    | 3/28일   | 전주말대비    |
|----|------|---------|---------|--------|-----------------|-----------|---------|---------|----------|
| 주가 | 미국   | 5,074.1 | 5,580.9 | -9.08%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3.99%   | 4.25%   | -26bp    |
|    | 유럽   | 496.33  | 542.10  | -8.44% |                 | 독일        | 2.58%   | 2.73%   | -15bp    |
|    | 중국   | 3,342.0 | 3,351.3 | -0.28% |                 | 영국        | 4.45%   | 4.69%   | -25bp    |
|    | 일본   | 33,781  | 37,120  | -9.00% |                 | CDS<br>5y | 한국      | 46bp    | 37bp     |
|    | 한국   | 2,465.4 | 2,558.0 | -3.62% | 중국              |           | 67bp    | 51bp    | +16bp    |
| 환율 | 달러지수 | 103.02  | 104.04  | -0.98% | 위험<br>지표        | EMBI+     | 425     | 389     | +36bp    |
|    | 유로화  | 1.0956  | 1.0828  | +1.18% |                 | VIX       | 45.31   | 21.65   | +109.28% |
|    | 엔화   | 146.93  | 149.84  | +1.98% |                 | WTI유      | 61.99   | 69.36   | -10.63%  |
|    | 위안화  | 7.2818  | 7.2622  | -0.27% | 원자재             | 구리        | 440.2   | 513.0   | -14.19%  |
|    | 원화   | 1,461.0 | 1,469.9 | +0.61% |                 | 금         | 3,038.2 | 3,085.1 | -1.52%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의지 재확인. 재무장관은 경기침체 우려 일축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경제 혁명이며, 일자리 창출과 사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결국 역사적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4/5일 10%의 보편관세는 시작되었고, 국가별 상호관세는 4/9일부터 발효
- 여타의 백악관 인사들은 미국의 관세 완화 조건이 상당히 엄격하며, 국가 정상 간의 통화는 관세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 베센트 재무장관도 50여 국가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에 큰 관심이 없다고 발언
- 아울러 베센트 장관은 관세 부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 또한 단기적 측면에서 증시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러트닉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돕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중요한 상품의 자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
- 관세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관세 인상에 따른 단기적 경제 피해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발언. 지금은 관세가 중요하며, 향후에는 환율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첨언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예상. 생산자물가는 상승할 가능성

- 4/10일 3월 소비자물가(CPI)가 발표.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떨어질 것으로 예상(각각 2.8%→2.6%, 0.2%→0.1%). 근원 CPI의 경우 하락 및 상승을 전망(각각 3.1%→3.0%, 0.2%→0.3%). 對中 관세가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른 물가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4/11일 발표되는 생산자물가(PPI)의 경우 대중 관세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헤드라인 P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각각 3.2%→3.3%, 0.0%→0.2%)과 근원 P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각각 3.4%→3.6%, -0.1%→0.3%)이 모두 상승세 강화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

### ■ JPMorgan, 미국 성장률 전망 하향. 여타 투자은행의 주가 전망은 다소 상이

- JPMorgan은 금년 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3%→-0.3%)하며 역성장을 예고.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은 상향(40%→60%)
- 한편, UBS는 기업 이익 악화 등을 이유로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낮춰서 제시(6,400→5,800). 여타 투자은행들도 대부분 이에 동조. 반면 Ed Yardeni는 향후 관세정책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며, 지금은 저가매수의 적기라고 평가

### ■ EU 관계자, 7일에 對美 보복 관세 발표할 전망. EU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공조 논의

- 익명을 요구한 일부 관계자들은 EU가 7일 예정된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8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현실에 직면하여 영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발언

### ■ ECB 주요 인사, 미국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 고조. 일부는 4월 금리인하 관측

- 슈나벨 이사는 역내 구조적인 문제가 미국의 관세정책과 결합되어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시장에서는 경기둔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ECB가 4월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Goldman Sachs)

### ■ 중국 국영 언론, 미국의 압박이 두렵지 않지만 양국 간 상호이익 도모할 필요

-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주요 국영 언론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두렵지 않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주권과 이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다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본질은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

### ■ 일본은행 총재, 경제 전망 수정 시 이를 정책에 반영. 미국 관세정책은 하방 압력

- 우에다 총재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경제 전망이 바뀌면, 정책도 이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자국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하방 모두 가능하다고 평가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4/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소비자신용잔액, ECB 치포롤네 이사 발언, 유로존 2월 소매판매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미국 경제, 단 며칠 만에 견조한 성장 전망에서 침체 우려로 급변 - WSI

(In Matter of Days, Outlook Shifts From Solid Growth to Recession Risk)

-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증시가 폭락. 이에 JP Morgan은 글로벌 경기침체 확률을 대폭 상향 조정(40%→60%)하고, 4/4분기 미국 GDP가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전 전망은 +1.3%).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가계 구매력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 결정을 지연시킬 것으로 관측
- 한편 이전 경기침체 우려 시기와 비교해 노동시장은 더 취약한 상태이며, 저소득층 가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연준의 정책적 대응 여력이 제한적. 이에 향후 경기침체 회피 여부는 소비지출의 회복력 등에 좌우될 전망

### ■ 미국 트럼프 관세, 유관자와 기업의 고통 심화 등으로 지속 불가능에 무게 - Financial Times

(Why Trump's tariffs won't last long)

- 미국의 광범위한 상호관세와 여타국의 보복관세 등으로 자국민의 물가 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신뢰는 더욱 악화될 전망. 이는 트럼프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26년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 참패의 단초를 제공할 소지
- 한편, 미국 기업들은 관세 및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제약, 비용 증가, 기업가치 하락 등에 직면. 특히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중소기업에는 더욱 어려운 여건이 조성. 이에 기업의 불만이 늘어날 전망(BCA Research).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적 고통 증가 등으로 장기간의 관세 시행은 정당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중국의 무역전쟁 피해, 유리한 경제구조 구축으로 미국보다 적을 소지 - 블룸버그

(China Has Already Trade-War-Proofed Its Economy)

-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다음의 이유로 중국은 미국보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첫째,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소비재로 관세 충격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반면,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은 대부분 원유, 반도체 등 중간재로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
- 둘째,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매우 높아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반면,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미미. 셋째, 미국은 고물가고금리에 직면한 반면 중국은 물가 하락세와 저금리로 관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 또한 중국은 여타국들의 관계 강화로 무역전쟁 지속 시 미국보다 더 유리한 입장

- **비은행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관리, 금융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 블룸버그**  
(Finance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unexpected)
  -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맞물려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 '21년 아케고스 사태, '22년 영국 국채시장 위기와 같은 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가운데, 비은행 부문의 자산 규모가 전통은행 규모를 넘어서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 특히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그 위험이 더욱 증가
  - 비은행 금융에서는 위험에 대한 노출 한도가 주요 레버리지의 제한 수단이나 한계점이 명확. 따라서 규제기관은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감수를 막기 위한 적정 마진 하한선을 설정하고, 변동성 확대 시 담보 요구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 아울러 정보 공개와 공유를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미국 트럼프 관세, 전통 경제학이 아닌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 Financial Times**  
(How to make sense of Donald Trump's tariffs)
- **미국 트럼프발 무역전쟁, 자국 및 글로벌 금융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Trump's Trade War Looks Brutal for Finance, Too)
- **글로벌 소매업체, 미국 관세 범위 확대 등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 - 블룸버그**  
(Trump's Trade War Is Setting Up the Next Big Debt Default Wave)
- **유럽의 미국 관세 회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소지 - WSJ**  
(Tariffs Are Bad for Europe. Drawing Closer to China Isn't a Magic Bullet.)
- **중국, 글로벌 對美 무역전쟁 심화로 정치력 강화교역국 확대 등의 수혜 예상 - WSJ**  
(U.S. Tariffs Make Xi Jinping's Day)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